

부정 응답 표현 ‘아니요’와 ‘아니예요’, ‘아니’와 ‘아니야’의 비교

권 선 영*

1. 서론

‘아니요’와 ‘아니예요’, ‘아니’와 ‘아니야’는 다른 사람의 물음에 부정하는 의미로 대답할 때 쓰이는 말이다. 사용 빈도가 매우 높으며, 한국어 교재에 서는 초급 단계에서 등장하여 다른 표현보다도 먼저 익히게 된다. 그런데 한국어 학습자의 질문 내역에서 ‘아니요’와 ‘아니예요’의 구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한국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화자라면 직관으로 ‘아니요’와 ‘아니예요’를 선택할 수 있으나, 둘의 차이를 명료하게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이들을 비교하여 설명한 한국어 교재도 찾기 어려웠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를 살펴보면 대체로 ‘아니요’는 ‘네/예’와 함께, ‘아니예요’는 ‘이예요’와 함께 다루고 있다. ‘아니’와 ‘아니야’에 대해 다루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교재라는 특성 상 경어 위주로 회화 예문이 구성되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아니요’와 ‘아니예요’를 비교한 선행 연구로는 정희창(2010)이 있다. ‘아니’와 ‘아니야’만을 대상으로 비교한 연구는 미처 찾을 수 없었으나, 부정 표현에 대한 연구, 감탄사 및 담화 표지에 대한 연구 등 여러 방향에서 이들에 대해 다루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논의들을 ‘아니요’와 ‘아니예요’,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수료

‘아니’와 ‘아니야’ 위주로 정리하여 비교해 보고자 한다.

논의 순서는 사전을 바탕으로 의미에 대한 정보 기재 방식을 먼저 비교하고, 이후 말뭉치 정보를 통해 형태적, 문법적, 담화적 특징을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기로 한다. 사례 검토에는 말뭉치 검색을 활용한다.

2. 사전적 정보의 비교

먼저,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부정의 의미와 ‘아니’ 형태를 공유하는 형용사, 부사 및 감탄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니 [부사] ① (용언 앞에 쓰여) 부정이나 반대의 뜻을 나타내는 말. ② (명사와 명사 사이에 쓰이거나, 문장과 문장 사이에 쓰여) 어떤 사실을 더 강조할 때 쓰는 말.

아니 [감탄사] ① 아랫사람이나 대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묻는 말에 부정하여 대답할 때 쓰는 말. ② 놀라거나 감탄스러울 때, 또는 의아스러울 때 쓰는 말.

아니다 [형용사] ① 어떤 사실을 부정하는 뜻을 나타내는 말. ② (의문형으로 쓰여) 물음이나 짐작의 뜻을 나타내는 말. 사실을 긍정적으로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아니야 [감탄사] 아랫사람이나 대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묻는 말에 부정하여 대답할 때 쓰는 말. ‘아니’보다 더욱 단호히 부정할 때 쓴다.

아니오 [감탄사] → 아니요.

아니요 [감탄사] 윗사람이 묻는 말에 부정하여 대답할 때 쓰는 말.

감탄사의 의미 정보에는 ‘묻는 말에 부정하여 대답한다’는 표현이 공통으로 포함되어 있다. 즉 가부(可否)를 묻는 질문을 전제로 하여 이에 응답하는 역할을 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형용사인 ‘아니다’의 항목에서는 ‘대답한다’는 표현이 없어 감탄사의 설명과는 차별화된 것을 볼 수 있다.

《연세한국어사전》에서 같은 항목들을 찾아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니 [부사] [용언 앞에서] 부정하는 뜻을 나타냄.

아니 [감탄사] ① 놀라움, 의문, 감동 등을 나타냄. ② [한 단어만으로] ‘그렇지 않다’는 뜻으로 대답하는 말. ③ 어떤 사실을 힘주어 말하기 위하여 앞에 말한 내

용을 부정하는 말.

아니다 [형용사] ① 어떤 사실이나 내용을 부정하는 뜻을 나타냄. ② [의문이나 부정의 끝로 쓰이에] 어떠한 사실이나 내용을 강하게 긍정하는 뜻을 나타내다.

아니야 [감탄사] 부정의 뜻을 힘주어 나타내는 말.

아니오 [감탄사] 묻는 말에 ‘그렇지 않다’는 뜻으로 대답하는 말.

《연세한국어사전》에 ‘아니요’는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감탄사 ‘아니’의 여러 의미 중 놀람과 감탄 등의 감정을 표현하는 의미를 부정 응답의 의미보다 앞서 설명하고 있다는 점도 《표준국어대사전》과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3. 형태 구성의 비교

먼저 정희창(2010:117)에서는 ‘아니예요’를 통사론적 구성으로, ‘아니요’는 한 단어로 굳어진 형태론적 구성으로 본다. 그러므로 ‘예’의 상대어를 ‘아니오’가 아닌 ‘아니요’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국립국어연구원(2000)과 동일한 처리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송창선(2008)에서는 여기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이러한 방법은 ‘아니야’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아니야’는 감탄사 ‘아니’에 보조사 ‘야’가 결합한 것으로 설명할 수 없고 형용사의 어간 ‘아니-’ 어미 ‘-야’가 결합한 것이기 때문에(송창선 2008:80), ‘아니야’의 ‘-야’를 종결어미로 본다면 유독 ‘아니요’의 ‘요’만 종결어미가 아니라 보조사로 다루어야 할 근거가 약해진다고 보았다(송창선 2008:65). 이러한 관점에서 송창선(2008)에서는 ‘예’의 상대어를 ‘아니요’로 정한 표준국어대사전의 태도를 비판하고, 종래에 써 오던 ‘아니오’가 ‘예’의 상대어로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표준국어대사전》과 《연세한국어사전》에서는 ‘아니야’를 감탄사로 처리하고 있다. 즉 종결어미 ‘-야’가 ‘아니-’에 붙어서 활용된 형태가 아니라 문법화된 하나의 형태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정희창(2010)에서는 ‘아니야’에 대해서는 송창선(2008)과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아니야’는 용법상

‘아니요’보다 ‘아니예요’와 더 유사성을 보이며, 이는 ‘X는 Y가 아니야’라는 통사적 구성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이다(정희창 2010:123-124). 송창선(2008)에서는 ‘아니야’에 대한 이론상 부담을 이유로 들어 ‘아니요’가 ‘예’의 상대어로 적합하지 않다고 보았으나, 정희창(2010)에서는 ‘아니야’에 대해서는 송창선(2008)과 견해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아니요’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를 보인다. 즉 국립국어연구원(2000)과 송창선(2008), 정희창(2010)의 ‘아니야’와 ‘아니요’에 대한 주장에 전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의견차가 발생한 지점을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 (가) ‘아니야’와 ‘아니요’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 (나) ‘아니야’와 ‘아니요’의 분석에 있어서 둘의 구성이 동일하다고 전제할 것인가.
- (다) ‘예’의 상대어로 ‘아니요’가 적합한가.

(가)와 (나)를 해결하기 위해 ‘아니야’의 ‘야’와 ‘아니요’의 ‘요’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아니요’에 대해 살펴보면, ‘요’는 해요체 문장 말미에 전반적으로 등장하는 것과 동일하며, 현재는 이를 보조사로 처리하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이를 따른다면 어간에는 보조사가 결합할 수 없으므로 선행하는 ‘아니’는 부사 혹은 감탄사로 제한되며, ‘응답’이라는 감탄사의 역할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부사가 아닌 감탄사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니요’는 감탄사 ‘아니’에 보조사 ‘요’가 결합한 형태로 분석이 가능하다. 이 때 보조사 ‘요’는 ‘아무렴요, 이봐요, 그래요, 글썄요, 천만예요’ 등 다른 감탄사와도 결합하는데 이를 근거로 ‘아니요’만 문법화한 것으로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할 수도 있고, 모든 감탄사와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으로 결합하는 점을 들어 결합한 일부 예들을 전부 문법화한 단어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사전을 근거로 할 때 각 사전마다, 또한 사전 내에서도 단어마다 처리 방식에 차이를 보이므로¹⁾ ‘아니요’의 문법화 여부

1) 앞서 ‘아니요’를 표제어로 등재한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다음 감탄사와 ‘요’의 결합형 일부를 표제어로 처리하고 있었다. ‘그래요, 아무렴요, 암요, 천만예요’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글썄요「감탄사」 남의 물음이나 요구에 대하여 분명하지 않은 태도를 나타낼 때

및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본고에서 논하지 않고 우선 구성요소를 최대한 분석하기로 한다.

‘아니야’의 ‘-야’는 사전에서 대체로 종결어미로 처리하고 있다. 다음은 순서대로 《표준국어대사전》과 《연세한국어사전》의 표제어를 가져 온 것이다. 두 사전은 ‘-이야’, ‘아니야’를 공통으로 예문에 보이는 등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야’를 어미로 볼 경우 ‘아니야’는 형용사 어간 ‘아니-’에 어미 ‘-야’가 결합한 활용형이 된다.

-야 [어미] (‘이다’, ‘아니다’의 어간 뒤에 붙어) 해할 자리에 쓰여, 어떤 사실을 서술하거나 물을 때 쓰는 종결 어미.

예) 이게 뭐야? / 참 좋은 사람이야. / 그건 사실이 아니야.

-야 [어미] 해체의 종결 어미 1. 단정하는 뜻을 나타냄.

예) 무슨 사고가 난 모양이야. / 그렇지만 그녀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건 아니야. / 난 절대 늙지 않을 거야.

2. ㉠ 듣는 이에게 물음을 나타냄.

예) 철수가 학생이야? / 그게 사실이 아니야?

㉡ [수사 의문문에 쓰이어] 강한 부정을 나타냄.

예) 너 같은 애도 학생이야?

3. 말하는 이의 감탄이나 느낌을 나타냄.

예) 이 곳은 참 아름다운 곳이야! /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야!

이에 따르면 분석 결과 구성 요소의 유사성은 각각 ‘아니’와 ‘아니요’, ‘아니야’와 ‘아니예요’ 사이에서 찾을 수 있다. ‘아니’와 ‘아니요’는 감탄사 ‘아니’를 주 요소로 하여 ‘아니요’에만 보조사 ‘요’가 덧붙은 것이고, ‘아니야’와 ‘아니예요’는 형용사 ‘아니-’라는 동일 어간에 다른 종결어미가 결합한 활용형으로 보인다. 위의 (나)에서 제기한 문제는 ‘아니야’와 ‘아니요’의 구성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다)를 보면, ‘예’의 상대어가 무엇인가 알아보기 위해 먼저 ‘예’의

쓰는 말. 해요할 자리에 쓴다.

이봐요「감탄사」 듣는 이를 부를 때 쓰는 말. 해요할 자리에 쓴다.

여봐요「감탄사」 가까이 있는 사람을 부를 때 쓰는 말. 해요할 자리에 쓴다.

정보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순서대로 《표준국어대사전》과 《연세한국어사전》의 처리 방식은 다음과 같다.

예 [감탄사] ① 윗사람의 부름에 대답하거나 묻는 말에 긍정하여 대답할 때 쓰는 말. =네. ② 윗사람이 부탁하거나 명령하는 말에 동의하여 대답할 때 쓰는 말. =네. ③ 윗사람의 말을 재우쳐 물을 때 쓰는 말. =네. ④ 윗사람에게 조르거나 사정할 때 쓰는 말. =네.

예 [감탄사] ① 묻는 말에 긍정적으로 대답하는 말. 비슷한말: 네 / 반대말: 아니오 ② 잘 알지 못하거나 미심쩍어서 재차 되묻는 소리. ③ 상대방의 말에 이어서 응답해 다음 말을 이어가는 존대의 말. ④ 무엇을 요구하거나 확인하는 존대의 말.

상대어를 품사, 형태, 높임 등급 등이 일치하는 어휘로 결정해야 한다면, ‘예’의 상대어는 의지를 표시하는 감탄사여야 하며 윗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말이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형용사 ‘아니-’의 활용형인 ‘아니예요’보다는 감탄사 ‘아니’의 높임말이 ‘예’의 상대어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상술한 논의에서 등장한 ‘아니’의 높임 표현으로는 ‘아니요’와 ‘아니오’가 있다.

‘예’의 높임 등급을 우선 살펴보면, 말뭉치에서 ‘예’는 다음과 같은 문장들과 연결되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 (1) 가. 예, 멸쩍합니다. / 예, 말씀만 하십시오.
 나. 예, 여보, 그래두 부인이 있길래 저렇게 아들을 낳지 않았소? / 예, 그러하오리다. 하하하.
 다. 예, 그래요, 저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라. “두 놈?” “예. 어디에 있길래 보이질 않았을까. 튀었을 리는 없는데.”

(1가)은 합쇼체의 종결어미를 갖는 ‘-하니다’, ‘-하십시오’의 문장과 공기한 예이며, (1나)은 하오체의 ‘-소’, ‘-오’ 종결어미를 갖는 문장과 공기한 예이다. (1다)은 해요체의 문장으로, 현대어 말뭉치에서는 ‘예’와 공기하는 문장 중 해요체와 합쇼체가 압도적인 빈도를 차지하고 있다. (1라)은 800여 건의 말뭉치 검색 결과 중 단 한 건 등장한 ‘예’가 반말의 문장과 공기한 경우이

다. 그러나 이는 맥락을 볼 때 ‘예’와 후행하는 문장의 청자가 서로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앞선 ‘예’는 질문한 상대방에게 대답하는 말이지만, 뒤의 문장은 화자 자신에게 들려주는 혼잣말로 보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이제 ‘아니오’를 살펴보면, 역시 말뭉치에서 등장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2) 가. 아니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 나. 아니오, 담배가 아니라 볼펜이었소. / 아니오, 팬츠소 걱정 말고 시장에 가구려. / 아니오, 우린 모르오.
- 다. 아니오, 그럴 시간은 없는 것 같아요.

‘아니오’의 말뭉치 용례는 ‘예’나 ‘아니요’에 비해 수가 적게 나타난다. (2)에서와 같이 합쇼체, 하오체, 해요체의 사례가 모두 등장하고 있으나, 주목할 만한 것은 하오체의 문장이 공기한 사례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다. 이는 현대어에서 하오체의 문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는 점, ‘예’나 ‘아니요’의 결과에서 하오체의 사례가 차지하는 비중이 마찬가지로 극소하다는 점을 볼 때 유의미한 비중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회화에서 한 사람의 말이나 글에서 한 가지 이상이 높임 등급이 섞여 쓰이는 현상이 드물지 않으므로 ‘아니오’와 합쇼체, 해요체 문장의 공기 현상이 그와 같다고 하면, ‘아니오’는 하나의 감탄사로 굳어진 어휘가 아니라 종결어미 ‘-오’를 통해 하오체의 상대높임 등급을 실현하고 있는 ‘아니-’의 활용형으로 보는 편이 설득력이 높다. 또한 응답 표현뿐 아니라 ‘A가 B가 아니오’와 같이 학교문법 상 보어를 취하는 형용사로 쓰이는 예도 존재한다. 동일 어간이 합쇼체 종결어미로 활용된 것은 ‘아닙니다’, 하계체 종결어미로 활용된 것은 ‘아니네’로 볼 수 있다.

‘아니오’를 ‘예’의 상대어로 내세울 때의 문제점으로는 격식체와 비격식체가 서로 어긋나 보인다는 점이 남아 있다. ‘예’는 ‘응’과는 아예 다른 형태로 높임을 표현한 어휘적 높임에 가까우며 격식체와 비격식체에 모두 통용되는 반면, ‘아니요’의 보조사 ‘요’는 비격식체로 분류되는 해요체 문장을 형성하는 주 요소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은 용례를 흔히 볼 수 있

는데 이는 ‘아니요’를 격식체로 바꾼다면 유사한 형태인 ‘아니오’가 되는 것으로 간주한 결과라고 짐작된다.

(3) ㄱ. 예, 아니오로 대답하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다.

ㄴ. 아가 저쪽 변호사님이 예, 아니오로 대답하라며 이렇게 물으셨지요.

그러나 ‘예’의 문체를 격식체라고만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며, 형용사의 활용형 ‘아니오’와 별개의 단어인 감탄사 ‘아니오’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 기존 높임 등급에서의 하오체와 구분하여 흔히 쓰이는 ‘쓰시오’, ‘구하시오’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문어적 표현을 포함하는 하라체의 높임으로서의 하오체를 따로 분류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도 남아 있다. 이와 같은 처리가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현대 한국어에서 하오체가 차지하는 비중에 비하여 문법적 부담이 커 보인다.

위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예’의 상대어로는 동일한 두루높임 등급의 감탄사 ‘아니요’가 선택되는 것이 설득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송창선(2008)을 따라 ‘아니오’를 ‘예’의 상대어인 감탄사로 보게 되면 ‘예’가 아우를 수 있는 경어법상의 범위와 ‘아니오’의 범위 인식이 다르다는 점, ‘예’와 ‘아니오’의 품사가 다르다는 점 등이 문제가 된다.

4. 문법적 특징의 비교

‘아니요’와 ‘아니예요’는 해요체 이상으로 대우해야 하는 상대에게 사용하고 하대하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다.(정희창 2010:117) 즉 해요체와 함쇼체의 문장에서 가장 높은 빈도로 출현한다.²⁾

2) 정희창(2010:121-122)에서는 ‘아니’도 ‘아니요’와 같이 상대높임법 등급 상 ‘해체, 하오체, 해요체, 함쇼체’를 넘나들며 폭넓게 등장하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아니’가 이미 문법화된 하나의 단어로서 그 뒤에 이어지는 문장의 경어법에 따른 제약

- (4) ㄱ. 아니요 괜찮아요.
 ㄴ. 아니요 괜찮습니다.
 (5) ㄱ. 아니예요 괜찮아요.
 ㄴ. 아니예요 괜찮습니다.

말뭉치에서는 다소 적은 용례나마 ‘아니요’가 하오체 문장과 결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예가 존재한다. 하계체의 문장과 결합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 (6) ㄱ. “혹시 오반장을 찾아온 것 아니요?” 춘기는 흠칫했지만 얼굴색을 바꾸지 않고 대답했다. “아니요 바람 쐬러 왔을 뿐이요.”
 ㄴ. “아니, 당신이 잃은 돈이 이백 냥이 아니었소?” “아니요, 실은 소 살 돈 이백 냥에다 용돈으로 쓰려고 두 냥을 함께 넣어 두었던 말이요. 그러니 그 돈도 마저 내놓으시오.”

응답 표현인 ‘아니’와 ‘아니야’는 위와 반대로, 해라체의 문장에서 가장 높은 빈도로 출현한다.

- (7) 아니, 그렇지 않아.
 (8) 아니야, 그렇지 않아.

말뭉치에서는 하계체 문장과 연결된 소수의 예가 존재한다.

을 받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응’의 경우 ‘아니’와 달리 ‘응’은 ‘해체, 하계체, 하오체, 해요체’ 문장과는 함께 등장하나 ‘합쇼체’의 문장과 함께 등장하는 경우는 발견할 수 없었다. 즉 문법화 결과에 따라 공기할 수 있는 상대높임법 등급이 달라진다는 점은 동일하나 그 범위는 대응되는 ‘아니’와는 다르다.

- (예) ㄱ. 응, 그냥 그렇지.
 ㄴ. 응, 그러겠나?
 ㄷ. 응, 걱정 마오.
 ㄹ. 응, 나예요.
 ㅁ. ?응, 집니다.

- (9) “음, 김서방. 내가 잘못했네.” “아니야, 잘못된 것은 나야. 우리집 식구야 뒤늦었지만 뉘우치네. 용서하게나.”
 (10) “아니야.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자네에게 진 빚을 하나하나 갚겠네.”

요약하면 상대높임법의 등급 중 두루높임의 문장과 공기하는 것이 ‘아니요’, ‘아니예요’이며, 두루낮춤 문장과 공기하는 것이 ‘아니’, ‘아니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선행하는 질문에 대해 대답하는 표현이므로 격식체보다는 비격식체에 쓰인 예가 압도적으로 많다.

다음과 같이 높임법이 혼란되어 쓰인 예도 발견할 수 있다.

- (11) 경민: 언감생심 그렇게 젊고 예쁜 당신을…… 나이 잔뜩 먹은 내가 감히…….
 영순: 아니야, 아니예요.
 경민: 내 잘못이야.

그러나 이는 ‘아니야’가 해요체와 공기했거나 혹은 반대로 ‘아니예요’가 해체와 공기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남기심·고영근(1993)에서 지적했던 바와 같이 동일한 인물에게 한 가지 이상의 높임 등급을 섞어 쓰는 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혹은 앞의 ‘아니야’는 청자를 의식한 것이 아니라 혼잣말을 중얼거린 것이며, 뒤의 ‘아니예요’에서 청자에게 들려주는 말로 고쳐 말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5. 화용적 용법의 비교

‘아니’와 ‘아니요’는 독립된 감탄사로, 연결된 문장의 다른 요소와 통사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며 선행하는 질문에 대해 응답하는 의미만을 가진다.

- (12) ㄱ. 점심 먹었어?
 ㄴ. 아니, 아직 안 먹었어.
 ㄷ. 아니야, 아직 안 먹었어.

- (13) 가. 점심 먹었어?
나. 아니요/아뇨, 아직 안 먹었어요.
다. ?아니예요, 아직 안 먹었어요.

이에 비해 ‘아니야’와 ‘아니예요’는 ‘X는 Y가 아니야/X는 Y가 아니예요’의 통사적 구성으로 물음에 대한 단순한 진위 응답 이상의 의미를 담도록 확장될 여지가 있다. ‘아니다’가 지닌 부정의 의미에 ‘X는 Y가’라는 세부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화자가 부정하고 있는 대상과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한다는 특징이 있다. 때문에 다음과 같은 되물음이 가능하다.(정희창 2010: 118)

- (14) 철수: 점심 먹었어?
영희: 아니예요.
철수: 밥 먹었냐니까 뭐가 아니야?

따라서 정희창(2010:119)에서는 다음과 같이 화자의 견해가 더 들어갈 여지가 있는 경우 ‘아니예요’로 대답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하였다.

- (15) 가. 271번이 창덕궁에 가지요?
나. 아니요, 271번은 가지 않아요.
나'. ?아니예요, 271번은 가지 않아요.
다. 아니예요, 272번이 가요.

이는 질문자가 질문한 내용인 ‘271번이 창덕궁에 간다’는 것에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진 경우로, 화자가 그에 대하여 (15나)과 같이 단순한 부정의 의미만 표현하는 경우에는 ‘아니예요’가 어색하고 ‘아니요’가 자연스럽지만, 화자가 상대의 확신이 옳지 않다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 일정한 의견을 전달하는 (15다)과 같은 경우는 ‘아니예요’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화자는 대략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 (16) (271번은 창덕궁에 가는 것이) 아니예요, 272번이 가요.

이 외에 ‘아니야’와 ‘아니예요’가 전달하는 화자의 태도에는 사양이나 겸양의 의미가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17) ㄱ. “그렇게, 고마워.” “아니예요.”

ㄴ. “괜히 정신없는데 와서 미안하구먼.” “아니예요, 성님이 옆에 계셔서 든든한 걸요.”

ㄷ. “앞으로 잘 부탁할게요.” “아니예요, 제가 무슨 힘이 있다고.”

ㄹ. “여기 앉으십시오, 죄송합니다.” “아니예요, 괜찮아요.”

ㅁ. “내가 함께 가 줄까?” “아, 아니예요.”

위 용례에서 ‘아니예요’ 대신 ‘아니요’를 쓰면 어색해지거나, 후행하는 문장의 내용에 의해서만 적합성을 획득하는 대화가 된다. 후행하는 문장을 생략하면 어색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18) ㄱ. “그렇게, 고마워.” “아니요.”

ㄴ. “괜히 정신없는데 와서 미안하구먼.” “아니요, 성님이 옆에 계셔서 든든한 걸요.”

ㄷ. “괜히 정신없는데 와서 미안하구먼.” “아니요.”

그러나 ‘아니요’와 ‘아니예요’에 관련된 화자의 판단이 늘 명백한 것은 아니라고 정희창(2010:120)에서는 지적하며 다음과 같은 예를 들고 있다.

(19) ㄱ. 점심 같이 먹을래?

ㄴ. 아니요, 저는 괜찮아요.

ㄷ. 아니예요, 저는 괜찮아요.

이처럼 ‘아니요’와 ‘아니예요’가 모두 선택되는 경우가 있는 것은 상황에 대한 판단이 화자의 주관에 의해 결정될 뿐만 아니라 ‘아니요’만으로 대답하더라도 후행하는 문장 ‘저는 괜찮아요’에서 내용을 보충하기 때문에 의미상으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90ㄴ)에서는 화자의 발언이 ‘배가 고프지 않으므로 그럴 생각이 없다’ 등의, 질문에 대해 단순한 부정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19ㄷ)

에서는 제안에 대해 부드럽게 사양하고자 하는 태도를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담화 상황을 가정해 볼 때 (19ㄱ)의 질문에 대한 해석도 답변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즉 ‘아니요’라고 답변한 경우에는 함께 식당으로 가겠느냐는 질문이라면 ‘아니예요’라고 답변한 경우에는 질문자가 밥을 사 주겠다는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아니요’와 ‘아니예요’가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예들이 있다.

- (20) ㄱ. “선생님, 몸이 불편하세요? 얼굴이 좋지 않아요.”
 ㄴ. “아니요, 잠깐 현기증이 나서…….”
 ㄷ. “아니예요, 잠깐 현기증이 나서…….”

(20)의 예문은 말뭉치 용례에서는 ‘아니요’가 선택되었으나 ‘아니예요’를 써도 어색하지 않은 대화이다. ‘아니요’를 선택한 경우가 ‘몸이 불편하세요?’라는 질문에 대해 부정이라면 ‘아니예요’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걱정하실 일이 아니다’라는 화자의 견해를 더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질문문의 서술어가 ‘이다’나 ‘아니다’인 경우, ‘아니요’와 ‘아니예요’로 대답할 수 있다. 이때의 ‘아니예요’는 서술어 ‘아니다’를 제외하고 선행 문장 요소가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다음 (21ㄷ)과 같은 경우는 동일한 의미의 문장을 강조 등의 목적을 위해 반복적으로 언급한다는 느낌을 준다.

- (21) ㄱ. “동정씨는 이런 걸 자주 가져오는데 돈을 주고 사온 것입니까?”
 ㄴ. “아니요, 절대 돈 주고 산 게 아니예요.”
 ㄷ. “아니예요.”
 ㄹ. “아니예요, 절대 돈 주고 산 게 아니예요.”

추가적으로, 김미숙(1997)에서는 응답 표현 ‘아니’와 ‘아니요’가 언제나 비선호적 표지로 쓰이지는 않으며 선호적 표지로서의 응답 기능도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아 다음의 예를 제시하였다.

(22) (전략) 가: 음 그랬어요? 노래는 무엇 부르실래요.

나: 하- (한숨)

가: 왜 한숨을 쉬세요?

나: (웃음) 아니요.

가: (웃으면서) 하기 싫으세요?

나: 아니요, 너무 떨려가지고요.

(23) 가: 이거 웬 음식을 이렇게 많이 장만하셨어요?

나: 아니, 별로 차린 것도 없어요.

김미숙(1997:86)에서 (22)과 같은 ‘아니’는 선행 화자의 짓곳은 질문에 답화를 이어가고자 하는 의도가 있음을 표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여, 이러한 ‘아니’는 선호적 표지로서의 기능을 보이는 것이라 보았다. 또한 (23)와 같이 겸양과 예절을 표시하기 위한 ‘아니’ 역시 선호적 표지라고 보았다. 이는 선행 발화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으나, (23)의 경우는 특히 선행 발화가 대답을 크게 기대하지 않는 질문이라는 점으로 보아 응답 기능과 담화 표지 기능 양쪽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아니’는 같은 의미의 높임 표현 ‘아니요’는 획득하지 못한 독특한 담화 표지의 기능과 의미를 갖고 있다. ‘아니’의 담화 표지로서의 의미와 기능에 주목한 논의로는 구종남(1997), 김미숙(1997), 이한규(2012)를 들 수 있다. 구종남(1997)에서는 간투사인 ‘아니’의 의미가 부정소 ‘아니’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았다. 다만 부정소처럼 명제를 직접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화자의 어떤 믿음이나 기대를 부정하여 놀라움과 의아스러움을 표시하거나 잘못된 발화를 거절, 오해임을 표시하거나 혹은 상대방의 발화를 이해하지 못했음을 표시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보았다. 또한 화자의 전제를 부정하는 기능, 발화 순서를 가져오는 기능, 상대방의 행동을 만류하거나 금지하는 기능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김미숙(1997)에서는 담화 표지 ‘아니’의 기능을 크게 수용불가의 감정을 표시하는 기능, 주의집중을 유도하는 기능, 잘못된 발화를 자기 교정하는 기능의 셋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이한규(2012:157)에서는 담화 표지 ‘아니’의 의미를 더 세분화하여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로 제시하였다.

- (24) ㄱ. 아니, 수옥이가 결혼을 해?
 ㄴ. 아니, 김 선생님 아니세요?
- (25) A: (전략) 그렇게 애절하게 애원하다시피 ... 얘기를 했는데도 당부를 했는데도 일주일 만에 한 학생이
 B: 결석을 했어요.
 A: 이 서울 바람 좀 쐬려간다고
 C: 아니
- (26) A: 어디를 봐서 인기가 있겠어요?
 B: 아니 목소리 괜찮으시지, ... 인상 좋으시지, 젊으셨지...
- (27) A: (전략) 그리고 세계적으로 한 시간에 만 삼백 삼십 명이 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한 사십팔 명이 태어나죠. 이제 좀 아시겠습니까?
 B: 아, 아니,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숫자를 잘 아십니까?
 A: 아니, A씨도 사람을 어떻게 보고 그러십니까? 지가 이래봐도요, ...(후략)
- (28) B: 굴비고장에서 오셨네.
 A: 굴비처럼 생겼잖습니까? (객석 웃음)
 B: 아니 아 아 요즘은 굴비가 참 귀합니다.
 A: 예, 영광 진짜 영광 굴비를 맛보기가 힘들죠
- (29) B: 어 이것도 다 낮고, 그래 무결석도 이루고
 A: 이루고 아 그런 고비를 또 넘겼잖습니까?
 B: 그래서 삼 년 만에
 C: 아니 그러지 말고 그냥 저기 숫제 병원에 애들 다 입원시켜놓고 거기 가서 ...
- (30) 선우: 지난 주말에 어디 갔었어? 전화도 안 받고
 경서: 고향에 다녀왔어요.
 선우: 너 선 봤구나, 맞지? 이 옷도 새 것이고
 경서: 아니, 할머니가 많이 편찮으셔서요.
- (31) 아니, 아니. 김 사장님. 내 말 좀 들어보세요.
- (32) 많은 사람들,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24)는 예상하지 못한 놀람을 표시하는 기능을 보이는 예로, 구종남(1997)과 김미숙(1997)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다. (25)은 예상하지 못한 놀람 기능을 활용한 맞장구 기능으로, 이야기에 대한 적극적 관심 표명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26)은 자기 주장 방어의 기능이라고 보았다. 상대가 동의하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할 때, 자신의 의견의 정당성을 위해 추가적인 논거를 제시하는 상황에서 사용된다는 것이다. (27)은 방어 기능에서 분화된 것으로, 선행 화자의 발언에 대응하여 반박하려 하나 무슨 말을 해야 좋

을지 망설일 때, 적절한 말을 찾기 위한 시간을 벌 목적으로 사용한 예라고 하였다. (28)는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기능으로, 이는 거절이나 부정의 상황에서 자주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는 화제 전환 기능으로도 연결된다. (29)은 김미숙(1997)에서도 제시했던 발언 차례를 가져오는 기능의 예이다. 이한규(2012)에서도 상대 화자의 발화 도중에 끼어들거나, 상대방으로 말차례를 가져오기 위해 사용된다고 설명하였다. (30)도 상대 발화를 부정하거나 반박하는 상황에서 사용된 것이나, 직접 반박하기보다 상대방의 견해를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사용된 것으로 역시 담화 표지로서의 용법이라고 보았다. 그 밖에도 (31)에서처럼 청자가 관심을 기울이게끔 하는 주의 환기 기능, (32)에서처럼 이미 발화한 정보를 보다 정확한 표현으로 수정하는 자기수정 기능 등을 들었다.

6. 결론

지금까지 ‘아니요’와 ‘아니예요’, ‘아니’와 ‘아니야’에 대해 사전적 기술 방식, 어휘 분석, 문법적 특징, 화용적 특징으로 분야를 나누어 비교해 보았다. ‘아니요’와 ‘아니예요’, ‘아니’와 ‘아니야’는 선행하는 질문에 부정하는 의미로 대답할 때 쓰이는 말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아니’는 하나의 형태로 이루어진 감탄사이며, ‘아니요’는 감탄사 ‘아니’에 듣는 상대방을 높이기 위한 보조사 ‘요’가 결합하여 형성된 것으로 역시 감탄사로 처리된다. ‘아니야’와 ‘아니예요’는 형용사 ‘아니다’가 변하여 형성된 활용형이다. 따라서 한국어 문장에 대한 직관을 가진 화자라면 ‘아니’나 ‘아니요’에는 생략된 다른 문장 성분을 가정하기 어려운 반면 ‘아니야’와 ‘아니예요’에는 ‘그것이, 그건’과 같은 주어나 보어를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응답 표현인 ‘아니’와 ‘아니요’는 물음에 대한 거부만을 표시하는 반면 ‘아니야’, ‘아니예요’는 설득, 겸양, 사양, 강조 등 다양한 화자의 태도를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 역시 여러 선행 문장 요소, 주어나 보어를 생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직관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감탄사 ‘아니

요’는 쓰임이 비교적 명확하나, ‘아니’는 담화 표지로 쓰임이 확장되며 이 경우 매우 여러 가지 의미를 표현하는 데에 사용된다는 것도 살펴보았다.

이러한 차이점을 한국어의 담화 맥락에 대한 직관이 없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나 외국어 화자에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영어를 아는 화자에게는 ‘아니요’는 ‘no’, ‘아니예요’는 ‘That’s not’ 또는 ‘It’s not’에 대응된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설명은 한국어 학생들이 활용하는 여러 매체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얼마나 정확하게 대응될 수 있는지, 또한 다른 언어들과 비교했을 때에는 어떠한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영어 및 다른 외국어와의 비교는 다루지 않았다. 이와 같은 내용은 후속 논의를 기대하기로 한다.

참고문헌

〈논저류〉

- 강현화 외(2017), 한국어 유사 문법 항목 연구, 한글파크.
- 구종남(1997), “간투사 ‘아니’의 의미 기능”, 한국언어문학 39.
- 국립국어연구원(2000),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 I, II.
- 김미숙(1997), “대화구조로 본 ‘아니’의 기능”, 담화와인지 4-2, 담화인지언어학회.
- 김명광(2013), “격식체 어미와 통사적 접사 ‘-요’ 결합 관계에 대한 일고”, 배달말 53, 배달말학회.
- 김용경(1997), “높임의 토씨 ‘요’에 대한 연구, 한말연구 3, 한말연구학회.
- 남기심·고영근(1993), 표준국어문법론, 개정판, 탑출판사.
- 송창선(2008), “현행 한글 맞춤법의 몇 가지 문제점-‘아니요’와 부사화 접미사 ‘-이’, ‘-하’를 대상으로”, 어문학 100, 한국어문학회.
- 이한규(2012), “한국어 담화표지어 ‘아니’의 의미”, 현대문법연구 67, 현대문법학회.
- 鄭熙昌(2010), “‘아니요, 아니에요’의 敬語法과 文法的 特徵”, 어문연구 38(4), 한국어문교육연구회.
- 허재영(2008), “높임의 조사 ‘요’의 문법화-생성과 변화 과정을 중심으로”, 한말연구 23, 한말연구학회.
- 허재영(2012), “비격식체 상대 높임 조사 ‘요’의 기능과 생성, 변화 과정”, 한민족어문학 60, 한민족어문학회.

〈사전류〉

- 국립국어연구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2006), 《연세한국어사전》, 동아출판.